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241~265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이 상 현**
(Yi, Sang-Hyun)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Experience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historical origins of Latin American economic underdevelopment, by answering two research questions; 1)'Why is Latin America underdeveloped?' and 2)'How has colonial experience impacted on the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First, this essay analyzes long-term tendency of growth domestic product(GDP) per capita data. The data verify that current underdevelopment of Latin American economy is the result of economic stagnation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when Latin America suffere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before and after the independence from Spain and Portugal. It elucidates that colonial experience affected on the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Second, this essay reviews key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experience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shyi@pufs.ac.kr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To do so, the study categorizes extant literatur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its independent variables: 1)internal factor and 2)external factor. Finally, the essay surveys the role of institutions in Latin Americ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survey confirms tha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 In addition, the essay suggests some tasks for further research in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 1)the construction of basic economic data, 2)the substantialization of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and 3)the expansion of research on institutions which overcomes ideological rigidity of existing institutional approach.

[Key Words: Colonialism/ Economic Growth/ Factor Endowments/ Institutions/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
[주제어: 식민주의/ 경제성장/ 부존요소/ 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Ⅰ. 서론

라틴아메리카는 여러 측면에서 축복받은 대륙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이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거의 모든 종류의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심각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차이도 크지 않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다양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출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라틴아메리카는 저발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얼룩져 있다(Piñera, 2003: 409).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다.[1]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선진국들이 중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일례로 2005년 세계은행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일인당 평균 국내총생산은 36,500 달러이고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4,157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설'로 일컬어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이러한 경제적 저발전[2]은 많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왔다.[3]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식민 경험을 지니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이룬 소위 신대륙의 이웃 국가들인 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할 때 도드라져 보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저발전은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우선 주목할 만한 연구는 1960-70년대를 풍미하며 저발전의 원

---

1)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라틴아메리카는 그다지 저발전 지역이 아니다. 즉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보다는 가난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의 극빈국가들보다는 경제적 성취가 높은 지역이다.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을 내포한다. 이에 비해 경제성장은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본 논문의 관심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총생산 등의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경제성장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경제성장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총생산은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논의 또한 활발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3)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과 식민 유산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고전적인 연구로는 Stein과 Stein(197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인을 외부와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구조주의와 종속 이론가들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로 촉발된 이들의 주장은 학계뿐 아니라 이념적 성격이 가미되어 현실 정치와 사회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촉발된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경제발전의 결정요인이라는 범학제적 의문과 어울리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산출하였다. 대표적 연구 성과들은 기후, 자원, 인구 등의 부존요소(factor endowments)의 차이가 각기 다른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경제사 연구자 그룹,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급속히 발전한 다양한 경제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제사 연구에 '과학적 엄밀성'을 주장하며 구조주의 및 종속 이론가들의 주요 주장들을 반박하는 '신경제사(New Economic History)' 그룹, 그리고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Douglas North를 따라 시장구조, 재산권 구조 등의 제도를 경제발전의 주요 독립변수로 보는 '신제도주의 경제사학(New Institutional Economic History)' 그룹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되었다. 즉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범학제적 의문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은 식민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경제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한편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라는 본 연구의 주제는 식민경험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즉 수탈 또는 개발이라는 양극단의 시각으로 정립되기 쉬운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갈려 한국학계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는 주제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분석할 본 연구는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을 찾으려는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과 순서로 전개된다. 다음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의 장기적 경향에 관한 지표들을 통하여 저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사학자들이 계산한 국내총생산 추정치들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원인을 규명한 기존연구들을 독립변수의 성격에 따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이 라틴아메리카의 내생적 조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서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신제도주의 경제사학' 그룹은 물론 이념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그룹에서 논의되는 '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질문 즉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역사적 기원'과 '라틴아메리카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잠정적 결론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Ⅱ.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장기적 경향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우선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언제부터 성장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침체와 부진을

겪은 시기에 대한 이 의문은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를 반영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경제상황의 장기적 경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대표적으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장기적 경향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 중 대표적인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제시한 Madison(2003)의 연구이다. 이에 대표적인 라틴아메리카 경제사학자의 한 명인 Coatsworth(2005)는 본인의 추정치와 Madison의 추정치를 종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상황의 장기적 경향을 〈표 1〉에 제시하고 있다. 한편 Engerman과 Sokoloff (1997)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국내총생산 추정치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1인당 국내총생산(GDP) (1990년 국제달러)

경제권	1500	1600	1700	1820	1870	1900	2000
멕시코(Madison)	$425	$454	$568	$759	$674	$1,366	$7,218
멕시코(Coatsworth)	550	755	755	566	642	1,435	
다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제외)	410	431	502	663	683		5,508
브라질	400	428	459	646	713	678	5,556
카리브 지역 국가들	400	430	650	636	549	880	5,634
라틴아메리카	416	438	527	692	681	1,110	5,838
미국	400	400	527	1,231	2,445	4,091	28,129

Coatsworth, 2005: 129.

〈표 2〉 아메리카 대륙 경제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 1700–1989

1인당 GDP (1985 U.S. 달러)					
경제권	1700	1800	1850	1913	1989
아르헨티나	-	-	$874	$2,377	$3,880
바베이도스	$738	-	-	-	5,353
브라질	-	$738	901	700	4,241
칠레	-	-	484	1,685	5,355
멕시코	450	450	317	1,104	3,521
페루	-	-	526	985	3,142
캐나다	-	-	850	3,560	17,576
미국	490	807	1,394	4,854	18,317

Engerman and Sokoloff, 1997: 270.

〈표 3〉 아메리카 대륙 경제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경제권	1700-1800	1800-50	1850-1913	1913-89
아르헨티나	0.0	-	1.6	0.6
바베이도스	-	-	-	-
브라질	-	0.4	-0.4	2.4
칠레	0.4	-	2.0	1.5
멕시코	0.0	-0.7	2.0	1.5
페루	0.1	-	1.0	1.5
캐나다	-	-	2.3	2.1
미국	0.5	1.1	2.0	1.8

Engerman and Sokoloff, 1997: 270.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보여준 국내총생산의 장기적인 경향을 추정한 이러한 노력들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알려주고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식민지배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기간 동

안 라틴아메리카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당시의 서구유럽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이후 미국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가 18세기가 되어서야 이룬 것과 비슷했다는 것이다(Coatsworth, 2005: 129). 위의 표들에 제시된 국내총생산 추정치에 따르면, 1500-1700년 기간 동안 멕시코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능가하였다. 〈표 1〉의 Madison 추정치에 따르면, 멕시코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500년에 425 달러, 1600년에 454 달러, 그리고 1700년에 568 달러를 기록하며 1500년에 400 달러, 1600년에 400 달러, 그리고 1700년에 527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친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앞서고 있다. 이는 같은 표의 Coatsworth의 추정치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에 따르면 멕시코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500년에 550 달러, 1600년과 1700년에 755 달러를 기록하며 1500년과 1600년에 400 달러 그리고 1700년에 527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웃돌고 있다. 한편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추정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의 Coatsworth의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700년에 이르러서야 카리브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대등해진다.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던 시기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의 북반구 지역보다 앞선 경제발전의 정도를 보여주었으며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은 이후 전개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1700-1870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부진한 성장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표 1〉의 Coatsworth 추정치에 따르면, 카리브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일인당 국내총생

산은 1700년에 527 달러를 기록하고 1820년에 692 달러 그리고 1870년에 681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친데 비하여, 비교대상인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700년에 527 달러를 기록한 후 1820년에 1,231 달러 그리고 1870년에 2,445 달러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결국 1700년에 차이가 없던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870년에 이르러 거의 4배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Engerman과 Sokoloff의 추정치가 제시된 〈표 2〉에서도 확인된다. 〈표 2〉에 따르면 1700년에 각각 450 달러와 490 달러를 기록한 멕시코와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850년에 이르러 멕시코가 317 달러 그리고 미국이 1,394 달러를 기록하며 현격한 격차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제시한 〈표 3〉에 의하여 증명되는데, 1700-1850년 사이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700-1800년 사이의 0.5% 그리고 1800-1850년 사이에 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낮은 성장 또는 침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하여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장기적 추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번째 단서는,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의 어느 시점부터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표 1〉의 Coatsworth 추정치에 따르면, 1870년 681 달러를 기록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900년에 1,100 달러 그리고 2000년에 5,838 달러를 기록하며 1870-2000년 기간 동안 약 8.6배 증가한데 비하여 미국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870년에 2,445 달러, 1900년에 4,091 달러 그리고 2000년에 28,129 달러를 기록하며 약 11.5배 증가하였다. 또한 〈표 3〉에 따르면, 멕시코, 칠레, 브라

질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913-89년 기간 동안 평균 1.5-2.4% 성장하며 같은 기간 동안 1.8-2.1%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 및 캐나다와 대등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20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와 선진국 간의 격차의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현재의 라틴아메리카와 선진국과의 격차의 대부분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세기의 산물이 아닌 18세기와 19세기 기간 동안 보여준 라틴아메리카의 저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식민시대 후반기부터 독립 직후 시기의 부진한 경제성장 때문에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신세계의 비교대상 국가들과 다른 발전경로를 걷기 시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다른 발전경로의 설명을 시도한 독립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내적요인 또는 외적요인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여러 연구그룹에서 시도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기 다른 접근법, 다양한 독립변수, 그리고 차별적 방법론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성공적 연구논문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분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의 이론적 쟁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과제의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이념별, 학문분야별 또는 연구그룹 중심의 분류를 지양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라는 본 연구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접근에 기반을 둔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저성장의 원인을 라틴아메리카 내부와 외부적 조건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4]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원인을 라틴아메리카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은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비교는 라틴아메리카 저성장과 식민시대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원인과 식민시대의 역할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 즉 '식민지 책임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내부의 조건이 식민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식민지 내부의 조건이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설명변수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부존요소(factor endowment)'론을 들 수 있다.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기후, 지리, 인구, 자원 등의 '부존요소(factor endowments)'의 차이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는 '부존요소'론은 사실 경제사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설명력을 지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장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다(Engerman and Sokoloff, 1997: 260; 유항근 · 홍일곤, 2002).

'부존요소'론에 입각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저성장을 설명하는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Engerman and Sokoloff(1997, 2000)과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ngerman and Sokoloff

4) 본 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의 구분은 본 연구와 관련되어 대표적인 고전적 연구의 하나인 Stein and Stein(1970)의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편 Stein and Stein(1970)은 식민지의 부존요소의 차이, 식민모국의 제도적 특징 등 식민지 내 · 외부 변수 모두를 제시하여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종속과 저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1997, 2000)는 식민지 토양의 성격, 기후 그리고 인적구성의 차이와 같은 식민지 내부 부존요소의 차이가 각기 다른 분배구조와 식민착취제도로 귀결되었으며, 이렇게 발전한 식민제도는 다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극심한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심화시켜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ngerman과 Sokoloff는 식민시대의 아메리카 대륙을 1)대규모 노예노동에 기반한 대형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설탕, 커피, 쌀, 담배, 면화 등을 생산하던 카리브, 브라질, 그리고 미국남부형, 2)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원주민의 강제노동과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한 토지독점 그리고 풍부한 광물자원에 기반한 멕시코, 페루형, 3)유럽에서 이주한 소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으로 곡물농업과 축산업이 혼합된 미국북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ngerman and Sokoloff에 따르면, 결국 현재의 카리브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1)형과 2)형은 극도로 불평등한 경제 및 정치 분배구조를 창출하였고 이는 다시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제도들로 발전되어 이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대표하는 3)형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구조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광범위한 국내시장의 창출과 성장지향적 정책들의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Engerman과 Sokoloff는 아메리카 대륙의 각 국이 식민시대를 거치며 각기 다른 경제성장의 경로를 거친 가장 큰 원인은 각 지역 내부의 부존요소, 즉 각기 다른 작물에 적합한 토양의 성격과 기후 그리고 원주민 인구의 규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은 식민지 내부의 인구밀도와 질병상황이라는 부존요소들이 식민지의 향후 발전경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Acemoglu et. al.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이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할지라도 기존 인구가 많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인구가 적고 질병에 덜 걸리는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했다. 결국 유럽의 이주민들이 선호하여 많이 정착한 지역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생산적인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 식민지를 접촉한 군인, 신부 그리고 선원 등의 사망률이 유럽 이주민들의 규모를 결정하였다는 Acemoglu et. al.의 연구는 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많이 정착하였으며 이 지역이 경제성장에 두각을 나타내었는지를 설명하는 독창적인 연구이다.

다음은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외부의 조건이 식민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식민지 외부의 조건을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구조주의와 종속 이론가들을 들 수 있다. 비록 각각의 연구자별로 분석의 수위와 범주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많은 경우 식민시대가 직접적인 분석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이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외부와의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종속 이론가들과는 별도로 식민지 외부의 조건이 식민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가장 고전적인 주장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이 각기 분할한 아메리카 식민지의 제도는 식민모국의 제도가 복제된 것으로 향후 각 식민지의 운명은 결국 식민모국의 제도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주장한 Wiarda and Kline(2000: 20-21)가 대표적이다. Wiarda and Kline에 따르면, 연방제에 입각한 영국의 식민지 경영과 대비되어 본국의 국왕을 정점으로 한 스페인의 코포라티즘적 식민주의는 식민지의 교회, 군대 그리고 소수의 토지소유자의

특권을 보존하는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국왕 중심의 스페인 식민지배체제는 독립 이후 정치적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여 19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배자의 차이가 이후 피식민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Wiarda와 Kline의 연구는 높은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앵글로 중심주의(anglo-centrism)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의 차이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식민시대로부터 시작된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야기한 동인을 식민지 정치경제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한 Frankema(2006)의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1930년대 이후부터의 자료로 산출한 Frankema의 세계 각 국과 지역의 토지소유 분배지수(land gini)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rankema의 계산에 따르면, 세계 토지소유 불평등 상위 20개국 중 16개국 이상을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토지소유 불평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더불어 Frankema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민모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토지불평등 수준은 유럽 최고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Frankema, 2006: 3-4). 물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라틴아메리카가 모두 높은 토지소유 불평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식민지배 국가가 피식민지에 식민모국의 제도를 복제하였으며 이러한 복제가 이후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발견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Lange, Mahoney and Hau(2006)의 최근 연구 또한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유

럽의 식민경영자인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주의의 성격과 정도의 차이가 이후 식민지의 서로 다른 경제성장의 경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주의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중상주의를 추구하는 스페인 식민주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융성하여 경제적 축적이 용이한 지역을 식민지로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선호는 강제노동과 직접적 식민지배로 특징져지는 중상주의적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스페인의 중상주의적 식민제도는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국은 자본주의적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지역을 식민지로 선호하였다. 결국 스페인에 비하여 간접적인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영국의 식민지는 이후의 경제성장과 긍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제도의 도입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상대적 저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의 성격에 따라 내적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과 외적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내적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기후, 토양, 인구, 자원과 같은 지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부존요소'론으로 대표된다. 이에 비하여 라틴아메리카 저성장의 결정요인으로 외적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배자인 영국과 스페인 및 포르투갈 사이의 식민지배의 성격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Ⅳ. 제도의 역할과 성격

최근의 경제사 분야에서 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가장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93년 Douglass North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제도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도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우선 논의되어야할 것은 제도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공식적인 정치 및 법적구조 등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최근 경제사 연구에 깊은 영향을 끼친 North(1973, 1981, 1990)로 대표되는 '신제도주의 경제사학' 그룹은 제도를 공식적인 정치 및 법적구조와 더불어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North에 따르면,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의 게임의 법칙 또는, 좀 더 정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고안된 제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North, 1990: 3) 나아가 North는 '효율적인 제도'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원천이며 '효율적인 제도'는 민주주의 정도, 지대추구의 범위, 재산권의 보호, 근면성, 기업가 정신, 문화, 그리고 종교 등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김승욱, 2006). 본 연구에서 제도는 일반적 의미의 공식적인 정치 및 법적구조는 물론 '신제도주의 경제사학' 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화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5)]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정치 및 법적 제도와 재산권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현대적 경제성장을 위한 확실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North의 주장을

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제도의 개념은 어느 특정 학파나 연구 그룹의 주장을 내포하는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실험실" 이다. Bortz와 Harber도 언급하였듯이, 라틴아메리카가 역사적으로 보여준 급격한 재산권 체제의 변동과 다양한 경제성장의 결과들은 제도의 역할을 이론화하기 위한 최적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Bortz and Haber, 2002).

경제사 연구에서 제도의 부각은 계량적 방법론으로 무장되어 이론구축에 몰두하던 연구자들이 그동안 낡은 것으로 치부하던 질적 방법론은 물론 사회부조리 또는 불평등한 정치체제와 같은 배경지식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Gootenberg, 2004: 251). Gootenberg는 더 나아가,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닐뿐더러 제도주의는 잠재적으로 발전주의자, 폴라니류의 인류학적 관점, 그리고 심지어는 맑스주의적 정치경제와도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Gootenberg, 2004: 251). 결국 North에 의하여 주류경제학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제도에 관한 연구는 학문영역의 폐쇄성과 연구자의 이념적 성향을 뛰어 넘어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의 질적 도약을 가능케 할 잠재력을 지닌 무기이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물들은 제도 연구가 지닌 이러한 잠재력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경제사 연구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제도에 관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과 식민시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도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던 Engerman and Sokoloff(1997, 2000)와 Acemoglu et. al.(2001), 그리고 Lange et. al. (2006)의 연구는 각기 다른 독립변수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쁜"제도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한다.[6] 우선 Engerman and Sokoloff(1997, 2000)는 아메리카 대륙의 각 식민지는 각기 다른 부존요소로 인하여 각기 다른 분배구조와 식민착취제도를 탄생시

6) 이 연구들에서 제도는 일종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켰으며 이는 결국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로 대표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걷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ngerman and Sokoloff(1997)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광범위한 인구가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공평한 부의 분배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창출한데 비하여 극도로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하여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정치권력이 독점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엘리트의 정치와 경제영역에서의 독점을 유지시키는 '제도'를 구축하였다(Engerman and Sokoloff, 1997: 271-272). 한편 Engerman and Sokoloff(2000)는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및 캐나다가 독립 이후 발전시킨 토지제도, 선거권, 그리고 공공교육 등의 구체적인 제도들을 비교분석하여 제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들의 기존주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식민지의 인구밀도와 질병상황이라는 부존자원에서 출발한 Acemoglu et. al.(2001)의 주장은 North가 경제성장 결정요인으로 특히 강조한 '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이주민들은 원주민이 희박하고 질병에 안전한 식민지를 정착지로 선호하였다. 결국 다수의 유럽인이 이주한 지역은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반대로 소수의 유럽인이 이주한 지역은 일반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를 발전시켰다.

Lange et. al. (2006)의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들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Lange et. al. 은 스페인과 영국이 각자가 지향한 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중상주의적 제도와 자유주의적 제도라는 서로 다른 식민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지가 이후 다른 발전경로를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구조주의자와 종속 이론가들에게도 제도는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Raúl Prebisch는 그의 핵심주장인 '교역조건의 악화'는 시장이 아닌 제도 영역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rebisch는, 선진국의 공산품 생산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계약 때문에 쉽게 임금삭감을 하지 못하며 또한 과점적인 산업들은 수요가 축소될 때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생산의 축소를 담합하기 때문에 일차 산품 생산자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고 보았다. 한편 여러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자들 또한 토지소유권의 집중과 같은 제도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였다(Coatsworth, 2005: 133).

살펴본바와 같이, North로 대표되는 '신제도주의 경제사학'그룹에 의하여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한 제도에 관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 그리고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과 식민시대의 상관관계'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발전한 '나쁜' 제도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요약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제도에 관한 연구는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제도연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제도라는 변수가 지니는 포괄성과 이로 인한 강력한 이론적 설명력이다. 즉 정치 및 법적 구조는 물론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제도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특정변수의 종착점의 역할을 하며 이론적 타당성을 높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라는 개념이 지니는 이러한 포괄성과 설명력은 '식민경험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과 같이 실체적 규명을 요구하는 연구를 지나치게 추상화시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제도 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단

점은 실증연구에서 제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체화 노력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의 문제, 특히 식민경험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본 연구는 두 가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사학자들의 장기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저발전은 20세기의 산물이 아니라 18세기와 19세기 기간 동안 겪은 경제적 침체의 산물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20세기 기간 동안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시대 후반기부터 독립 직후에 겪은 성장부진 때문에 현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이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적 저발전의 원인을 제공한 시기가 식민시대 후반기부터 독립 직후라는 점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이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비슷한 시기에 식민 경험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한 미국 및 캐나다와 비교해 볼 때 식민경험의 차이가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을 초래하였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기존 연구들은 각기 다른 종류와 성격의 독립변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식민경험은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즉 코포라티즘적 식민체제 또는 중상주의적 식민주의와 같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고유한 식민지

지배형태가 라틴아메리카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기후, 토양, 인구, 자원과 같은 내부 '부존요소'의 차이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결국 식민 지배를 통하여 불평등한 분배구조와 같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나쁜'제도들이 발전하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제도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1993년 Douglass North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으로 주류경제학에서 확고한 영역을 구축한 제도에 관한 연구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제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 기본요소인 기초 데이터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제이다. Coastworth와 Madison의 국내총생산의 장기적 추정치 연구, Frankema의 토지소유 분배지수 구축, 그리고 Acemoglu et. al.의 식민지 인구밀도와 질병상황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좋은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실증연구를 통한 제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체화 노력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작업은 지나친 추상화로 귀결될 수 있는 제도연구의 단점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제도연구의 이념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연구의 확대이다. 다양한 방법론과 이념을 가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 연구는 더 이상 특정 연구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대상과 변수들 이외에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설명변수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다면성과 유연성이라는 제도

연구가 지닌 본연의 특성은 학과적 폐쇄성과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를 부활시킬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욱(2006), "재산권과 경제성장: 노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06년 2월 16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유항근 · 홍일곤(2002), 「지리적, 기후적 여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응용경제, 제4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1, No.5.

_____(2004),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In Philippe Aghion and Steve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San Diego. CA: Elsevier, pp.385-471.

Bortz, Jeffrey L. and Stephen Haber(2002), "The Institutional Economics and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 in Jeffrey L. Bortz and Stephen Haber (eds.). *The Mexican Economy, 1870-1930: Essays on the Economic History of Institutions, Revolutions, and Growth*.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12.

Coatsworth, John and Alan M. Taylor(1998), *Latin America and the World Economy Since 180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David Rockefeller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Coatsworth, John(2005), "Structures, Endowments, and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History of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40, No.3.

Easterlin, Richard(1981), "Why Isn't the Whole World Develope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41, No.1, pp.1-19.

Engerman, Stanley L. and Kenneth L. Sokoloff(1997), "Factor Endowments, Institutions, and Differential Paths of Growth Among New World Economics: A View from Economic Historians of the United States." in Stephen Haber. (ed). 1997. *How Latin America Fell Behind: Essays on the Economic Histories of Brazil and Mexico, 1800-1914*. Stanford University Press, pp.260-304.

Frankema, Ewout(2006), "The Colonial Roots of Latin American Land Inequality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Factor Endowments, Institutions or Political Economy?" Manuscript.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University of Groningen.

Gootenberg, Paul(2004), "Between A Rock and A Softer Place: Reflections on Some Recent Economic History of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9, No.2.

Haber, Stephen(1997), "Introduction: Economic Growth and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iography." in Stephen Haber. (ed). 1997. *How Latin America Fell Behind: Essays on the Economic Histories of Brazil and Mexico, 1800-1914*.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33.

Haber, Stephen. ed.(2000),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in Latin America: Essays in Policy*, History and Political Economy.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Press.

Lange, Matthew, James Mahoney and Matthias vom Hau(2006), "Colonialism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Spanish and British Col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11, No.5.

Madison, Angus(2003),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North, Douglass and Robert P. Thomas(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 C(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orton.

_____(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Bokyeong and Kang-Kook Lee(2006),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10, No.2, pp.167-202.

Piñera, José(2003), "Latin America: A Way Out." *Cato Journal,* Vol.22. No.3, pp.409-416.

Sokoloff, Kenneth L and Stanley L. Engerman(2000), "History Lessons: Institutions, Factor Endowments, and Paths of Development in the New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4, No.3.

Stein, Stanley J. and Barbara H. Stein(1970), *The Colonial History of Latin America: Essays on Economic Dependence in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riner, Gail(2003), "Recent Latin American Economic History and Its Historiograph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8, No.1.

Wiarda, Howard J. and Harvey F. Kline, eds.(2000),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5th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